



삶의 현장으로...

KOSTA/USA 2007 시카고 수양회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일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주제를 daily theme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그리스도임을 자각하고, 일상을 넘어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변화의 메신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메신저로서 아직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마지막날을 보내게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Into the untransformed world). 변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전달하고 변화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코스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날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오전: 마지막 조별 아침식사와 QT 후에 파송의 축제를 갖습니다. 파송의 축제에서는 조영택 목사께서 말씀해주시고, 성찬식과 악수례로써 파송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코스타 컨퍼런스동안 Kids KOSTA를 통해 예수님에 배우고 경험한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파송의 축제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

* 코스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 미국코스타 2007를 준비한 사람들 드림 -

Daily Themes

월: Welcome
화: Root of Transformation
수: Transformed, Beyond the ordinary
목: Messengers of Transformation
금: Into the untransformed world

* Thursday's Review *



코스타 넷째날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오전 강의에서 사도행전 17:22-31을 본문으로 '연대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희영 목사는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한 이유는 우리가 인류 전체가 대표원리를 기반으로 한 가족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 모든 인류가 고통 속에 있다는 연대성을 이해할 수 있고,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금식기도 시간에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북한땅과 탈북자, 고아를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평양과기대와 통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고,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강의실을 찾느라 바쁘게 캠퍼스를 움직여야 했던 두 개의 세미나 세션 후에 마지막 저녁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부른 찬양 후 '변혁을 위한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철호 목사는 나그네의 삶으로만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난 가운데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준비하고 떠나야 함을 시편 121편을 통해 도전하셨습니다. 많은 코스탄들이 선교에 헌신하였고, 이어진 기도의 밤에서 지난 나흘간 다루었던 주제말씀을 생각하며 변화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감을 아쉬워하는 많은 코스탄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조원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 새로이 만난 기쁨을 되돌아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간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단한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그분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것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책임과 중요성을 믿고 그 공동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그것에 부응하는 청지기적 소명을 다할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의 직장 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가정이 그분의 계획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지기를 바란다.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며 우리를 희생하여 그들을 돌볼 것을 결심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믿는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주되심을 믿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려고 한다.

열방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애та게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 것을 결단한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

코스타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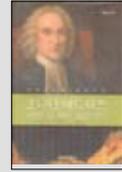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제임스 팩커
 ◆ IVP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명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 존 스토틀
 ◆ IVP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저서



부흥
 ◆ 로이드 존스
 ◆ 복있는 사람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 조나단 에드워즈
 ◆ 부흥과 개혁사
 교회사 최고 영적 거인의 영적 성장 비결의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에드워즈 입문서



영적 훈련
 ◆ 도널드 휘트니
 ◆ 네비게이토 출판사
 경건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서

* 코스타 집회에서 소개된 백금산 목사의 추천도서입니다.

KOSTA in KOSTA -

eKOSTA & gpKOSTA

미 국코스타 2007 수양회가 곧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코스타 2007 집회는 곧 끝나지만 코스타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나구요? 코스타는 일년 내내 계속되는 복음주의 학생운동이고, 또한 그것을 돕기 위해 계속되는 사역인 eKOSTA와 gpKOSTA가 있다는 뜻입니다.

eKOSTA

eKOSTA (<http://www.ekosta.org>) 는 월간 웹진으로서, 목회자 및 학생, 배우자, 선배 코스탄 등 다양한 필진들이 이론적인 강의부터 현장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글을 기고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감동과 결단을 삶의 현장으로!' 라는 모토의 eKOSTA를 통해 여러분은 코스타의 강의와 세미나를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강사 인터뷰 및 코스탄의 삶의 간증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ekosta@kostaus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gpKOSTA

gpKOSTA는 Gideon Project KOSTA의 약자로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수련회입니다. 각 지역에서 제자를 양육할 리더를 발굴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gpKOSTA를 통해 여러분은 제자삼는 삶, 성경 공부 인도법, 섬김의 자세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적인 훈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자, 평신도 사역자 및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올해는 Northern CA (San Francisco), CO (Denver), IL (Chicago, Champaign-Urbana) 등의 지역에서 gpKOSTA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탄 여러분들을 eKOSTA와 gpKOSTA를 통해서 계속 넓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사진으로 보는 KOSTA 2007



KOSTA/USA2007
Chicago 준비위원회 **추천도서**

2007 KOSTA/USA는 올해 처음으로 코스타 참석자를 위한 추천도서를 선정하였다. 추천도서는 두가지 영역에서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필독고전으로, 이 책들은 출판된 후로 복음주의 내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저자들의 건강한 저작들을 선택하였다. 또 한 영역은 비교적 최신 도서들로, 세계관·교회관·결혼·영성·기도·하나님나라·기독교입문·하나님나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 참석자들이 읽음으로써 좀 더 넓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법한 책들을 선정하였다.

-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 자코엘름, 대장간
- 전쟁과 정치 / 신원하, 대한기독교서회
- 창조 타락 구속 / 알버트 윌터스, MP
- 완전한 진리 / 낸시 피어스, 복있는 사람
- 잊혀진 제자도 / 달라스윌라드, 복있는사람
-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 / 로날드사이다, MP
-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 빌 앤더슨, 조이선교회
-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 조은숙, MP
- 이것이 교회다 / 찰스콜슨, 흥성사
- 바울의 공동체 사상 / 로버트뱅크스, MP
- 사권의기도 / 김영봉, MP
-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 찰스스탠리, 두란노
- 현실, 하나님의 세계 / 유진피터슨, MP
- 영적훈련과 성장 / 리처드 포스터, 생명의 말씀사
-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좋은씨앗
- 토마토와 빨간사과 / 레베카 피펫, 사랑플러스
-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 이덕주, 흥성사
-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양홍의, 성서유니온
- 구원이란 무엇인가 / 김세훈, 두란노
- 재즈처럼 하나님은 / 노달드 밀러, 복있는사람
- 필독고전**
- 부흥 / 마틴로이드 존스, 복있는사람
- 그리스도의 십자가 / 존 스토틀, MP
- 순전한 기독교 / C.S. 루이스, 흥성사
- 뒤틀려진 기독교 / 자코엘름, 대장간
- 신도의 공동생활 / 본 회퍼, 대한기독교서회
-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제임스 패커, MP
- 기독교의 기본진리 / 존 스토틀, MP
-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 존 스토틀, MP

코스타 에피소드



코스타 컨퍼런스 기간 동안 Behind the scene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1. 금요일 밤 기숙사 방 한 곳은 헤어 샵으로 변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 한 조원이 2시간이나 걸려 기구를 사서 같은 조원의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조별 활동을 많이 봤지만 서로 머리를 깎아주는 것을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원 중의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조원들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미용기술이 있으셨던 한 조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라주기로 한 겁니다.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는 자들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들? ^^
2. 이번 코스타는 Korean만을 의미하는 코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함께 참석했거든요. Leiton Chinn은 세미나 시간에 international student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고 Youth program에서 유스 그룹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 또 한 분은 이보다 아키오씨입니다. 영어 통역이 제공되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어의 계약을 뛰어 넘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3. 유스 코스타는 목요일 세미나 시간에 영아부와 와 단체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체 인원이 섬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영아부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생들 생각이 깊죠? 앞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구요. 코스타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한번 더 펼치자구요.
4. 1200명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셨습니까? 코스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전체 사진 촬영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1200명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해보셨습니까? 역시 코스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악수레는 어땠고요. 1200명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악수레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함께 찍은 사진, 함께 나누는 떡, 그리고 함께 잡은 손 잊지 말자구요.
5. 어느 참석자님의 글입니다. “작년에 싱글로 참여했던 저희들이 같은 조원으로 만났고, 배우자에 대한, 결혼에 대한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올해 3월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시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정이라는 거. ^^

**** KOSTA광고 ****

1. 체크인/모든 열쇠는 오늘 오후2시 이후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2시 이후에는 방으로 돌아가실 수 없으니 그 전에 check out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설문지 작성 / 파송의 예배 직전에 작성해주시는 설문지는 더 나은 코스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스타 여러분들을 솔직하고 성의 있는 설문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3. 오늘 미드 웨이와 오헤어 행 공항 셔틀을 Fisher Hall 앞 주차장에서 1시와 2시에 출발합니다.
4. 점심으로 지급되는 도시락은 명찰과 교환 됩니다. 혹 명찰을 분실하신 분들은 본부에서 확인 스티커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난 5일 동안 코스타를 섬겨주신 모든 감사, 자부,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